

효성, Nylon 방사 3500톤 증설

Carpet용 Nylon 공급타이트 따라 방사시설 확대 ... 9월 완공 예정

세계 Nylon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Carpet 수요가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Carpet용 원사를 생산하고 있는 효성(회장 조석래)이 Nylon 방사설비를 증설해 9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효성은 방사설비의 증설로 Carpet용 Nylon 생산량이 약 3500톤 증가하게 된다.

국내 Carpet 시장은 약 1800만S(Square)로 미국의 1억2000만S, 일본 5000만S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Carpet은 자동차, 호텔, 사무실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라이프스타일과 주거환경의 변화가 다양화되고 있어 수요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Carpet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Carpet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많은 편이고 Carpet Cleaning을 뒷받침할 제반시설이 부족해 국내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인 반면, 북미 및 유럽에서는 Nylon 섬유의 수요 가운데 Carpet용이 70%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Carpet용 Nylon 원사를 생산하는 효성은 자동차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데 Carpet용 원사 생산량의 30-4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나타났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9/09>